

투자 수익의 알파와 베타

개별 주식의 등락은 보통 시장 전체 상황과 상당 부분 연관되어 있다. 주식 시장이 전반적인 활황일 때는 대부분의 개별 주식들이 오르므로 어떤 주식을 샀던지 크게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보통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기에 주식을 샀다고 해도 어떤 주식을 어느 시점에서 샀는지에 따라서 시장 전체보다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수익률 평가에서 적용되는 개념이 수익의 ‘알파’와 ‘베타’이다. ‘알파’란 실제 수익률과 비교 지수와의 수익률 차이를 나타내며, ‘베타’란 시장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즉 전체 지수의 움직임에 편승하여 얻은 수익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가 10% 상승한 기간 동안, A라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15% 올랐고 B라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는 12% 밖에 오르지 못했다고 하자. 두 사람의 본래 투자목표가 S&P 500 지수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었다고 가정하면, A의 ‘알파’는 5% ($15\% - 10\%$), B의 ‘알파’는 2% ($12\% - 10\%$)가 된다. 이러한 ‘알파’의 비교는 자산 운용의 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다. ‘베타’는 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알파’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수익과 대비하여 높을수록 펀드 매니저 또는 투자자의 수익 창출 능력이 높은 것이다.

많은 뮤추얼펀드 등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고안된 투자 상품들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베타’가 차지하고 있으며, 인덱스펀드와 같이 정확히 시장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상품은 비록 시장이 하락했더라도 그 비교 지수와의 수익률 편차가 적을수록 우수한 상품이 된다. 그밖의 많은 다른 투자 상품 들은 비교 지수와의 ‘비교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운용의 목표이다.

이에 반해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도 최근 많이 개발되었다. 절대 수익률이란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 수익을 내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도 ‘알파’와 ‘베타’의 개념이 적용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절대 수익률에는 ‘베타’가 차지하는 부분이 아주 적거나 수익률 전체가 ‘알파’만으로 이루어져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권이나 CD와 같은 상품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는 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몇가지 다른 점이 있다.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전략으로는 시장 중립형 펀드 등이 있으며 채권이나 CD + ‘알파’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된다. 물론 이 ‘알파’는 채권이나 CD 같이 투자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위험성에 대한 보상이다. 그리고 채권이나 CD 처럼 미리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게 된다.

어느 투자전략이 자신에게 맞는지는 투자자 개인의 투자 목표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다.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는 ‘베타’가 높은 ‘비교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베타’가 낮은 ‘절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전략이 유리하게 된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현재 내 수익률의 ‘알파’와 ‘베타’는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기준에서 ‘알파’가 얼마나 높은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칼럼은 PDAM 자산운용(www.positivedelta.com)의 CIO 인 Andi Kim, CFA 의 견해로, 투자자문을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정보는 신뢰할 만한 출처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모든 운용성과와 경제지표등은 과거의 자료로서,

미래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주가지수에는 직접 투자하실 수 없습니다. PDAM 자산운용 (Positive Delta Asset Management, LLC)은 2004 년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진 (K.C. Chen, Ph.D., CFA, Andi Kim, CFA)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미국 SEC 에 등록된 자산운용 및 투자자문 기관입니다.